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2월

석사학위논문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활동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FTA 활용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정 윤 호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활동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FTA 활용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SME's Value Chain Activity Competency
on Performance in JeollaNamdo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FTA Utilization Level

2017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정 윤 호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활동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FTA 활용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송윤아

이 논문을 무역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정 윤 호

정윤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 원 장 조선대학교 교수 전 의 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석 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송 윤 아 (인)

2016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1. 가치사슬의 FTA 관련 선행연구	5
2. FTA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7
3. 전남지역의 FTA 관련 선행연구	10
4.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2
제1절 전라남도 경제 및 무역현황	12
1. 산업구조 및 경제 현황	12
2. 무역규모 및 수출입 구조	13
제2절 가치사슬의 개념과 측정	17
1. 가치사슬의 개념	17
2. 가치사슬의 성과 측정	18
제3절 FTA의 교역효과와 활용률	19
1. FTA 체결현황	19
2. FTA의 교역효과 분석	20
3. FTA 활용률 분석	24

제3장 연구의 설계28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28

1. 연구모형의 설정 28

2. 연구가설의 설정 28

제2절 연구표본과 변수의 설정 32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32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3

제4장 연구결과의 분석35

제1절 기초통계량 및 모형검증 35

1. 분석데이터의 기초통계 35

2. 연구모형의 검증 37

제2절 분석결과 및 가설 검증 40

1. 분석결과의 제시 40

2. 가설검증 결과 42

제5장 결 론44

1. 연구결과 요약 44

2.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한계 45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표 목차】

<표 1-2> 가치사슬의 FTA 관련 선행연구 요약	7
<표 1-3> FTA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요약	9
<표 1-1> 전남지역의 FTA 관련 선행연구 요약	10
<표 2-1> 전남지역 주요경제지표	12
<표 2-2> 전남지역 산업별 수출입	14
<표 2-3> 전남지역 대륙권별 수출입	15
<표 2-4> 전남지역 상위 5대 국가별 수출입	15
<표 2-5> 전남지역 품목별 수출입	16
<표 2-6> 가치사슬 성과측정 방법	18
<표 2-7> 한국 FTA 추진 현황	19
<표 2-8> 한·칠레 FTA ~ 한·미 FTA 국가간 교역규모	21
<표 2-9> 한·칠레 FTA ~ 한·미 FTA 국가간 교역비중	22
<표 2-10>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	25
<표 2-11>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	26
<표 4-1> 연구표본의 업종 분포	35
<표 4-2> 연구표본의 수출 및 관심 FTA 분포	36
<표 4-3>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38
<표 4-4> 변수 간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39
<표 4-5> 회귀분석 결과	41
<표 4-6>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성 가설검증	42

【그림 목차】

<그림 1-1> FTA 환경하에서의 기업의 변화 및 생존전략	6
<그림 1-2> FTA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 프로세스의 변화	6
<그림 2-1> 전남지역 수출입 추이	14
<그림 2-2> 가치사슬 모형	17
<그림 2-3> 한·터키 FTA ~ 한·콜롬비아 FTA 국가간 교역규모 증감율	23
<그림 2-4> 한·터키 FTA ~ 한·콜롬비아 FTA 국가간 교역비중 증감율	24
<그림 3-1> 연구모형	28

ABSTRACT

The Effect of SME's Value Chain Activity Competency on Performance in JeollaNamdo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FTA Utilization Level

Jeong, Yun-Ho

Advisor : Prof. Song Yun-Ah, Ph.D.

Department of FTA Busines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FTA utilization level on the effects of value chain activity capacity on business performance. Based on a survey of 117 SMEs located in jeollanamdo provinces in Korea,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primary activity capacity, support activity capacity of value chain activities and FTA utilization level have positive effects on business performance. but it did not reveal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FTA utilization level on the effects of value chain activity capacity on business performance.

This study has the follow: 1. First, it is significant that micro-FTA research was conducted for SMEs rather than macro-level FTA research. Second, in connection with the FTA, it is significant that the value chain activities were divided into the primary activities and the support activities.

Finally,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FTA utilization level.

In addition,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it is suggested that the FTA is not utilized as a business resource because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FTA utilization level is not found. Second, it is meaningful to present the direction of redesigning the value chain for future GVC utilization by analyzing the actual situation of SMEs as value chain activitie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라 기업은 외부 환경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세계 통상환경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중심으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의 발효건 수는 424건이며, 이중 374건이 1995년 이후에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6).

이러한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한국은 동시다발적 FTA추진정책을 통해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2016년 9월 현재 15건의 FTA체결하였으며, 52개국과의 FTA가 발효중에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6). 이러한 FTA추진성파로 미국, EU, 중국, ASEAN 등 세계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무역 규모 기준으로 전세계 70.3%의 경제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심혜정·조빛나, 2016)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가 타결되는 등 세계적인 FTA추세가 양자간 FTA에서 다자간 FTA인 메가 FTA¹⁾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자간 FTA심화로 인해 스파게티볼효과(Spaghetti Bowl Phenomenon)²⁾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줄이고,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메가 FTA의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2013)는 이러한 FTA추진성과와 세계적인 FTA추세에 따라 「新통상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기 구축된 FTA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논의의 핵심축(linchipin) 역할을 수행하고,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추진, WTO 등 다자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 통상질서 재편

1) 메가 FTA: 3개국 이상이 참여하여 양허 수준, 통상 규범 등을 제고하는 다자간 FTA(산업통상자원부, 2015)

2) 스파게티볼효과 :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 기대효과보다 반감되는 현상이다(Bhagwati, 1995).

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를 통한 시장창출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중소기업의 FTA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정인교, 2009; 최낙균·이경희·김정곤, 2009; 성한경, 2011; 오동윤, 2011; 이지원, 2015),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FTA가 국가간 교역 및 소비자 후생 증가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거시경제 차원에 관한 연구이며(김미아, 2008; 정인교, 2009; 최낙균 외, 2009; 신범철, 2010; 성한경, 2011; 민혁기, 2011; 송송이, 2011; 송백훈·임현진, 2012; 강유덕, 2012; 명진호, 2013; 문한필·정호연·김수지·김영준, 2014), 실질적 FTA효과 수혜대상이자 활용대상인 기업의 경영활동차원의 미시적측면의 연구는 소수 진행되고 있다(윤영호, 2010; 신일성, 2013).

이와 더불어 FTA가 메가FTA로 확대됨에 따라 누적기준 등을 활용한 Global Value Chain(이하“GVC”)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소기업이 GVC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사슬³⁾의 재설계가 필요하다(이창우, 2016).

그러나 현재 FTA와 가치사슬을 연계한 연구는 신일성(2012)이 FTA의 경제적 효과가 Balanced Score Card(이하“BSC”)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송병준(2014)이 FTA를 활용한 글로벌 Supply Chain Management(이하“SCM”) 최적화 방안 연구 등 소수 연구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GVC를 활용할 수 있도록 FTA와 가치사슬을 연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전남지역의 FTA관련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농수산부문을 중심으로 FTA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정철기, 2008)와 중소기업 FTA 활용의지에 대한 연구(정운호·이재은·강지원·심재혁·이희일·최민지, 2016) 등 소수 연구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은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FTA 활용주체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실질적인 FTA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여, 실질적인 기업의 FTA 활용현황 바탕으로 FTA 추진정책과 활용 지원정책 수립에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Poter(1985)의 가치사슬 이론을 바탕으로 가치사슬을 본원적활

3) 가치사슬 : 기업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기능·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한다(Porter, M. E., 1985)

동과 지원활동으로 구분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GVC 활용을 위해 어떠한 부분의 가치사슬의 재설계가 필요한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GVC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지역 중소기업의 FTA활용에 관한연구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FTA활용방안 및 지역경제 발전방안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구성 및 방법과 더불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연구의 차별성 및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제2장은 본 연구의 대상인 전남지역의 현황과 더불어 가치사슬과 FTA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3장은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연구 표본의 선정 및 설문구성,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등의 연구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4장은 연구 표본의 특성 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변수간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연구결과의 요약 및 연구의 실무적·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전남지역 현황과 더불어 가치사슬과 FTA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받은 998개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FAX, 이메일, 웹설문지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17개(회수율 : 11.7%)의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설문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치사슬 활동역량을 본원적 활동과 지원활동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FTA 활용수준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가치사슬의 FTA 관련 선행연구

신일성(2011)은 FTA 체결 및 발효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황적합이론, 자원기반관점이론을 바탕으로 경영전략과 BSC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독립변수로 FTA 경제적 효과를 동태적 경제효과와 정태적 경제효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 경영전략유형으로 FTA 경제적 효과와 경영전략유형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산업유형·기업규모의 조절효과를 측정하였다. 또 다른 종속변수로 BSC성과로 FTA 경제적 효과와 BSC 성과간의 관계를 측정하였으며, 산업유형·기업규모의 조절효과를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영전략유형을 매개변수로 FTA 경제적 효과와 BSC성과간의 매개역할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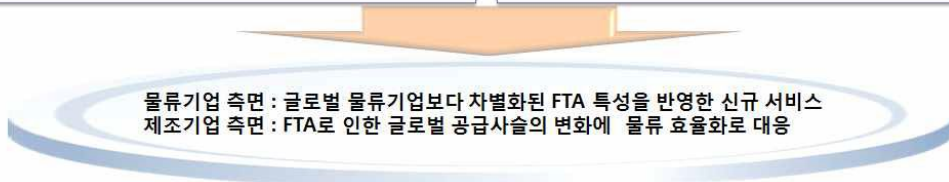
이러한 신일성(2011)의 연구는 가치사슬 성과측정 도구인 BSC 성과 분석과 경영전략유형을 접목하여 연구함으로써 FTA의 경제적 효과가 기업의 가치사슬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FTA활용이 어떠한 가치사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송병준(2014)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방안으로 <그림 1-1>, <그림 1-2>와 같이 FTA를 활용한 글로벌 SCM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송병준(2014)의 연구는 최근 가치사슬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SCM을 FTA와 연계하여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을 제안한 것으로 FTA를 활용한 기업의 가치사슬 재배치를 제안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CM은 기업의 물류차원에서의 가치사슬 활동을 중심으로 다룸에 따라 지원활동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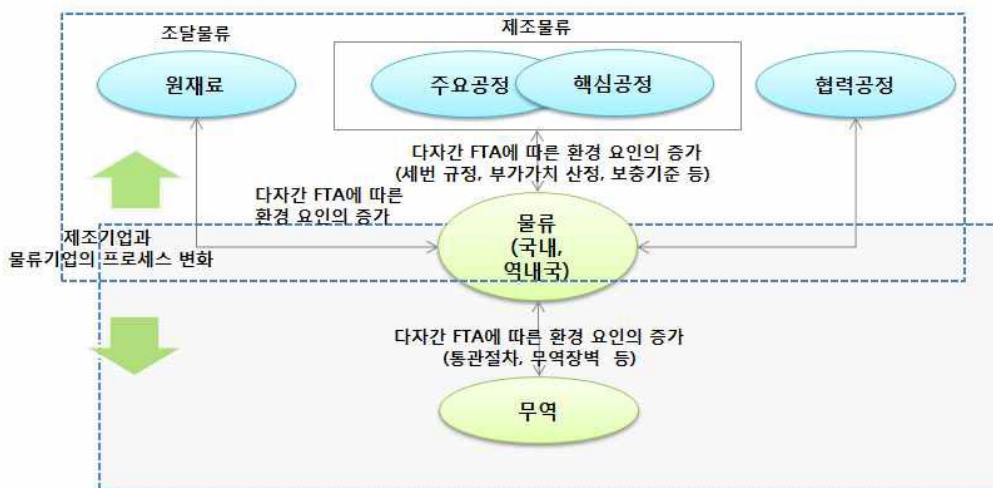
<그림 1-1> FTA 환경하에서의 기업의 변화 및 생존전략

FTA 시대에 물류의 변화	FTA 환경에서 물류업계 생존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체결로 인한 국제 물동량 변화 FTA시장 자체변화에 따른 물동량 변화 FTA환경으로 인한 유통 + 무역 + 물류의 가치 사슬 통합이 인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FTA시장의 유통망 단축으로 인한 소량, 다품종, 소액, 신속 물류의 필요성 산업 내 거래 증가로 인한 전문물류 발전 가능성 시장통합으로 인한 생산, 소비 패턴현상에 대한 종합물류 확대 택배시장 등 FTA로 인한 시장개방 미국 운수시장 등 FTA체결로 인한 시장 확대 국제적인 물류망 구축 움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대한 인식을 높여라 FTA인력을 양성해라 FTA로 인한 외국계 택배회사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라 글로벌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종합물류 대책을 세워라 산업 내 거래증가에 대비하여 전문 물류업계를 키워라 FTA체결국가에 대한 공동물류거점을 마련하라 물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가치 물류전략을 세 세워라 FTA시장에서 무 점포 유통확대에 대비하라 전자물류 및 U-Logistics준비를 하라 국제적인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 하라



자료 : 송병준 (2014), "FTA환경하에서의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IT기반 FTA 특화 비즈니스모델 구축방안", 「이슈리포트」, 2014-1, KTNET, p. 3.

<그림 1-2> FTA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 프로세스의 변화



자료 : 송병준 (2014), "FTA환경하에서의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IT기반 FTA 특화 비즈니스모델 구축방안", 「이슈리포트」, 2014-1, KTNET, p. 5.

〈표 1-2〉 가치사슬의 FTA 관련 선행연구 요약

저자명	논문 시사점
신일성(2011)	FTA 경제적 효과를 기업의 경영전략유형을 매개변수로 가치사슬의 성과측정모델인 BSC 성과에 영향요인을 분석함.
송병준(2014)	FTA 확대에 따라 가치사슬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SCM 측면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함.

자료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저자가 작성함.

2. FTA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Viner(1950)는 FTA를 비롯한 경제통합은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⁴⁾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Baier and Bergstrand(2007)의 연구와 FTA체결 전후 한국의 FTA 체결국가와의 교역규모 및 교역비중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증임에 따라 실제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⁵⁾을 활용하여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하게 되었다(배찬권 외, 2012).

배찬권 외(2012)는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를 무역, 해외직접투자, 생산성 및 고용성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 FTA의 효과가 개별 FTA에 따라 상호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거나 대체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송백훈 외(2012)는 한·ASEAN FTA의 무역동향을 분석하여, FTA가 체결되었음에도 FTA 양허수준 등에 따라 FTA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ASEAN의 각 국가와의 수준 높은 추가 FTA 체결의 필요성을 제언하면서, ASEAN의 각 국가들과의 FTA체결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4)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 무역창출 효과는 경제통합을 통한 무역장벽 철폐로 역내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하는 것이며, 무역전환효과는 역외 국가와의 교역이 역내 국가 간 교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Viner, 1950).

5)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적인 분석 방법과 FTA 체결 이후 나타난 현상을 대상으로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FTA의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사후적인 방법이 있다(배찬권 외 2012).

강유덕(2012)은 한·EU FTA 발효 후 1년동안의 무역동향을 분석하여, 수출증대 측면에서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단기적인 성과는 부족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EU FTA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기술협력에 초점을 맞춘 기술유치 및 습득 측면에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명진호(2013)는 한·미 FTA 발효 후 1년동안의 무역동향을 분석하여 FTA 수혜 품목과 비수혜품목의 차이를 분석을 통해 FTA 수출성과를 밝혀냈다.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미·EU FTA) 및 TPP 체결에 대비하여 미국 시장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내수 시장화하기 위한 FTA 활용증대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FTA의 당사국간의 무역통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FTA에 대한 관세양허품목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지만, FTA로 인한 효과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한 효과인지 알 수 없으며(배찬권 외, 2012), 실제적인 FTA 활용주체인 기업측면이나 소비자 후생측면에서의 FTA 효과의 측정이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단위의 FTA효과에 대한 미시적 연구가 소수 진행되고 있다. 윤영호(2011)는 기업수준의 설문조사를 통해 FTA환경 하에서 수출성과에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FTA체결로 인한 무역장벽 철폐, 원산지 활용역량, FTA시장에 대한 수출 몰입도, 해외마케팅 역량과 저비용역량 및 제품차별화역량 등이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으나, FTA 정보획득역량은 오히려 수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밝혀냈다.

신일성(2012)은 설문조사를 통해 FTA의 경제적 효과가 기업의 경영전략과 BSC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FTA의 경제적 효과가 BSC 성과측면에서 내부프로세스관점과 학습 및 성장관점에서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이러한 FTA 경제적 효과가 BSC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공격형 전략, 저원가 방어형 전략, 차별화 방어형 전략 등의 경영전략이 매개하는 것을 밝혀냈으며, 산업유형과 기업의 규모가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FTA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많은 선행연구가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FTA 효과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미시적 차원의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FTA 활용주체인 기업차원인 미시적 차원 연구를 통해 FTA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FTA 활용시 애로사항을 개선시킬 수 있음에 따라 많은 미시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된 미시적 차원의 FTA연구도 기업의 어떠한 측면에 FTA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어떠한 측면에서 FTA가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내부 경영자원으로써 FTA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1-3〉 FTA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요약

저자명	논문 시사점
Baier and Bergstrand (2007)	FTA 발효 후 10년 동안 FTA 당사국간 교역규모를 분석하여, 평균적으로도 2배가량 증가함 분석함.
Viner(1950)	FTA 등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를 제시함.
강유덕(2012)	한·EU FTA 발효 후 1년동안 무역동향분석하여 FTA 효과 분석함. 기술협력 및 소비자후생차원에서 중장기적인 FTA 효과 강조함.
명진호(2013)	한·미 FTA 발효 후 1년동안 무역동향을 분석하여 FTA 효과 분석함. 경쟁국대비 FTA 선점효과의 중요성을 주장함.
배찬권 외(2012)	FTA 효과를 무역, 해외직접투자, 생산성 및 고용성과 등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진행함.
송백훈 외(2012)	한·ASEAN FTA의 무역동향을 분석하여 FTA 효과 분석함. ASEAN 각 국가와의 수준 높은 FTA 추가 체결의 필요성을 제언함.
신일성(2012)	FTA 경제적 효과가 기업의 경영전략과 BSC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을 통해 분석함.
윤영호(2011)	기업수준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출성과에 FTA의 영향요인 분석함.

자료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저자가 작성함.

3. 전남지역의 FTA 관련 선행연구

정철기(2008)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을 전남지역 농수산부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농업 및 수산업의 경제적·정치적 피해와 그 대응방안으로 경쟁력강화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정윤희 외(2016)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FTA 활용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업의 내부특성과 외부환경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여, 내부요인으로 FTA 교육참여도, FTA 원산지활용역량, 외부요인으로 무역의존도, 내수시장의 경쟁정도가 모두 FTA 활용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FTA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중이지만,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가경제 못지않게 지역경제도 중요하며, 특히 농수산업이 밀집된 전남지역의 경우 FTA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응 및 활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1-1〉 전남지역의 FTA 관련 선행연구 요약

저자명	논문 시사점
정철기(2008)	한·중 FTA 체결에 따라 농수산분야의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정책 등을 통해 농수산부문 경쟁력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음.
정윤희 외(2016)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원 및 지식기반관점, 산업기반관점 그리고 상환 적합성 이론을 중심으로 FTA 활용의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기업 내부특성과 외부요인을 구분하여 FTA 활용의지에 영향요인을 분석함.

자료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저자가 작성함.

4.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전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활동역량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FTA활용수준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분석함으로써 FTA 조절효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FTA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시적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반해, 미시적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FTA 효과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거시경제 데이터를 활용한 중력모형, CGE모형 등을 활용한 FTA 효과를 분석한데 반해, 중소기업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FTA 활용수준을 조절변수로 측정함으로써, 미시적측면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FTA 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의 GVC 활용을 위해 FTA와 가치사슬을 연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GVC 활용을 위한 FTA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기업의 가치사슬에 관한 연구는 SCM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GVC를 활용하기 위해선 기업의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FTA 활용한 GVC 활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GVC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FTA와 기업의 가치사슬을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비교적 FTA 활용이 미흡한 FTA활용에 관한 전남지역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기업의 산업별 특성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FTA 연구가 거시적인 연구이거나, 공업밀집지역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전남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전라남도 경제 및 무역현황

1. 산업구조 및 경제 현황

기존의 전남지역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 위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제조업기반의 확대와 함께 미래전략산업의 성장과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 추진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정철기, 2008).

〈표 2-1〉 전남지역 주요경제지표

구분		전남(전국비중, 순위)		전국	
생산	(‘14)GRDP(백만원)	62,456,718	(4.2%, 9위)	1,485,504,665	
	(‘14)1인당 GRDP(백만원)	35	(3위)	29	
산업구조	(‘14)1차산업(백만원)	4,694,846	(13.6%, 3위)	34,319,917	
	(‘14)2차산업(백만원)	25,543,036	(5.06%, 7위)	504,900,600	
	(‘14)3차산업(백만원)	23,753,585	(2.9%, 10위)	815,299,188	
사업체 (‘14)	전산업	계	142,932	(3.7%, 10위)	3,812,820
		1명~9명	132,903	(3.7%, 10위)	3,514,339
		10명~299명	9,946	(3.3%, 9위)	295,025
		300명 이상	83	(2.4%, 13위)	3,456
	농업, 임업 및 어업	계	506	(15.8%, 1위)	3,184
		1명~9명	355	(16.4%, 1위)	2,159
		10명~299명	150	(14.6%, 1위)	1,024
		300명 이상	1	(100%, 1위)	1
	제조업	계	11,885	(2.9%, 9위)	397,171
		1명~9명	10,242	(3.1%, 9위)	328,505
		10명~299명	1,622	(2.3%, 12위)	67,965
		300명 이상	21	(2.9%, 12위)	701

	도매 및 소매업	계	39,961	(4%, 9위)	997,120
		1명~9명	39,158	(4.0%, 9위)	961,114
		10명~299명	803	(2.2%, 13위)	35,883
		300명 이상	0	(0%)	123
무역		('16.10 누계)수출액(천불)	23,109,713	(5.7%, 8위)	405,076,359
		('16.10 누계)수입액(천불)	17,307,374	(5.2%, 6위)	330,358,932
		('16.10 누계)무역수지(천불)	5,802,339	(7위)	74,717,42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및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를 토대로 작성.

전남의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전남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의 지역내총생산 대비 4.2%를 차지하여,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중 9번째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3천 5백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하여, 인구대비 지역내총생산이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내총생산기준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 등 1차 산업은 전국 16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하며, 도매 및 소매업 등 3차 산업(전국 16개 시·도 중 10위)에 비해 1차 산업의 산업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체수 기준으로 농업·임업 및 어업의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세종시 포함) 중 1위로 전국에서 농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무역규모 및 수출입 구조

전남의 무역규모는 수출액기준 전국 16개 시·도 중 8위, 수입액 기준 6위이며, 무역수지 기준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선박과 수상구조물, 철강제품 등 중화학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철광석 등 원재료 등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 2-2>와 같이 산업별 수출입을 살펴보면, 중화학 제품의 수출입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전남지역 산업별 수출입

(단위: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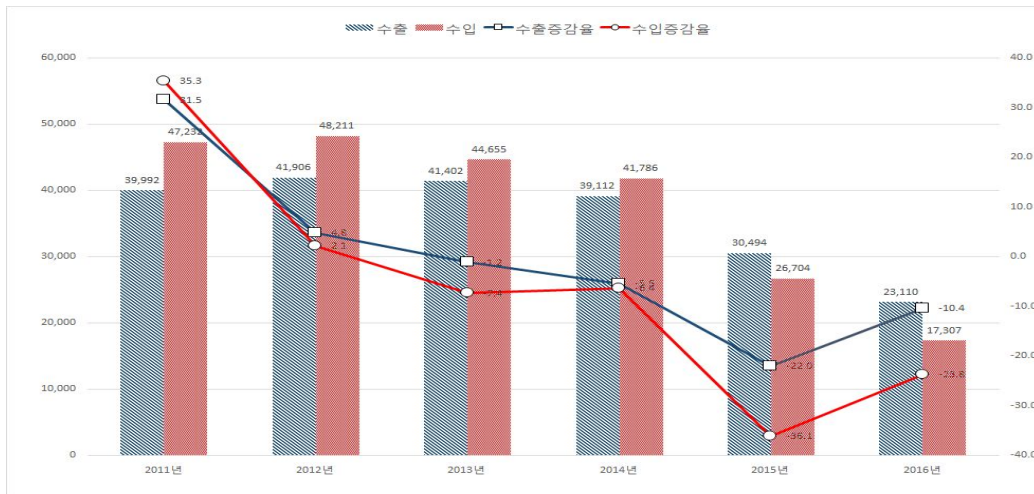
산업별	2015년				2016년(10월 누계)			
	수출액	수출 비중	수입액	수입 비중	수출액	수출 비중	수입액	수입 비중
총계	30,494	100.0	26,704	100.0	23,110	100.0	17,307	100.0
1차산품	432	1.4	19,733	73.9	412	1.8	12,418	71.7
공산품	30,063	98.6	6,971	26.1	22,698	98.2	4,890	28.3
-공업제품	179	0.6	75	0.3	126	0.5	70	0.4
-중화학제품	29,884	98.0	6,895	25.8	22,572	97.7	4,820	27.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지자체 산업별/성질별 통계

전남지역 최근 5개년 수출입 추이는 <그림 2-1>과 같다. 전남지역 수출입은 2012년 이후 환율변동 및 세계적인 무역 저조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5년, 2016년은 환율하락 등으로 원자재 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1> 전남지역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불,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지자체 수출입총괄 통계

전남지역의 대륙권별 수출입은 <표 2-3>과 같다. 대륙권별 수출은 아시아, 대양주, 유럽, 북미, 아프리카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중동, 아시아, 유럽, 대양주, 북미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아시아, 대양주,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전남지역 대륙권별 수출입

(단위: 백만불, %)

대륙권	수출액	수출증감률	수입액	수입증감률	수지
총계	23,110	-10.4	17,307	-23.8	5,803
아시아	13,263	-13.4	3,026	-8.0	10,237
대양주	3,182	-2.6	1,931	-27.8	1,251
유럽	2,562	-13.0	2,624	-26.3	-62
북미	1,366	-8.8	769	-22.6	597
아프리카	1,234	45.2	177	-38.3	1,057
중남미	872	-26.5	591	-25.5	281
중동	630	-12.1	8,183	-26.5	-7,553
기타지역	0	-100.0	6	90.8	-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지자체 대륙/경제권별 통계

전남지역 상위 5대 국가별 수출입은 <표 2-4>과 같다. 수출의 상위 5대 국가는 중국, 마셜제도, 일본, 미국, 싱가포르로 나타났으며, 수입의 상위 5대 국가는 UAE, 이라크, 호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로 나타났다.

<표 2-4> 전남지역 상위 5대 국가별 수출입

(단위: 백만불, %)

순위	국가명	수출액	수출 증감률	국가명	수입액	수입 증감률
1	중국	5,342	-15.3	UAE	3,071	-15.6
2	마셜제도	1,735	61.9	이라크	2,518	-22.5
3	일본	1,520	-5.7	호주	1,806	-27.3
4	미국	1,259	-9.4	러시아	1,631	-19.5
5	싱가포르	1,054	-15.0	사우디아라비아	1,292	-35.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지자체 국가별 통계

전남지역 품목별 수출입은 <표 2-5>와 같다. 품목별 수출 상위 품목은 화학공업제품, 광산물, 기계류, 철강금속제품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상위 품목은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농림수산물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전남지역 품목별 수출입

(단위: 백만불, %)

산업별	2015년				2016년(10월 누계)			
	수출액	수출 증감율	수입액	수입 증감율	수출액	수출 증감율	수입액	수입 증감율
총계	30,494	-22.0	26,704	-36.1	23,110	-10.4	17,307	-23.8
화학 공업제품	13,493	-18.0	1,805	-10.4	9,931	-13.9	1,325	-14.8
광산물	9,225	-35.0	22,219	-40.1	5,911	-25.2	14,130	-25.6
기계류	3,239	15.8	695	-14.6	3,757	49.7	459	-21.0
철강 금속제품	3,926	-21.6	916	7.2	2,979	-10.5	600	-24.8
농림수산물	260	-9.0	745	20.2	262	24.5	530	-0.6
전자 전기제품	189	62.6	252	-17.5	134	-15.0	192	-8.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04	-19.1	24	10.3	89	2.1	24	18.4
섬유류	42	-7.3	34	0.8	26	-24.7	28	0.1
잡제품	8	-86.7	5	-17.6	12	84.5	5	3.3
생활용품	9	7.1	9	-20.9	8	8.6	14	85.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지자체 품목별 통계, MTI 1단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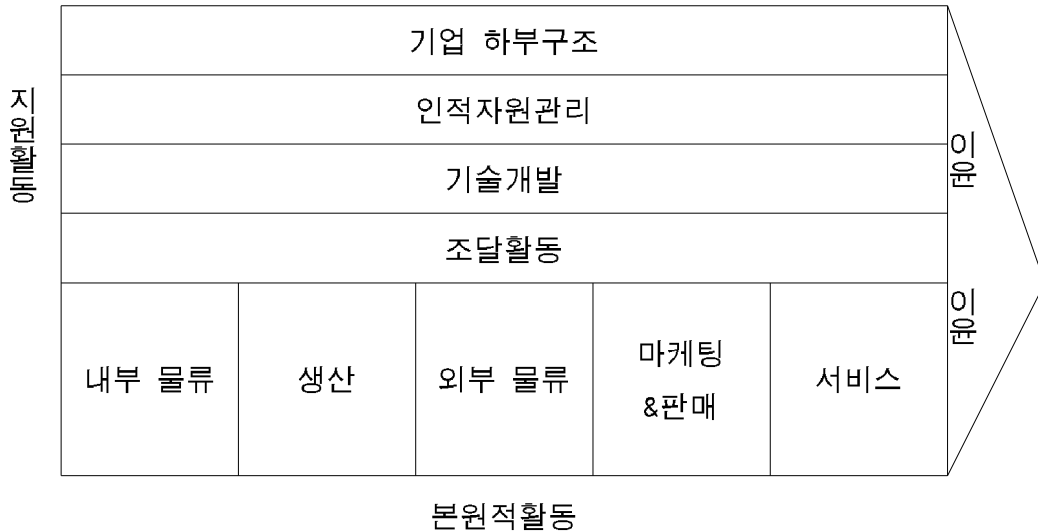
제2절 가치사슬의 개념과 측정

1. 가치사슬의 개념

가치사슬이란, Porter(1985)가 정립한 모델로 경영전략부분에서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론틀로써,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일련의 활동·기능·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여 및 주요 활동 등에 따라 <그림 2-2>와 같이 본원적활동과 지원활동으로 나뉘볼 수 있다.

본원적활동은 제품의 생산·운송·마케팅·판매·물류·서비스 등과 같은 기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으로 부가가치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지원활동은 구매·기술개발·인사·재무·기획 등 기업 현장을 보조·지원하는 제반업무로 부가가치를 간접적으로 창출하는 부문의 활동이다. 이러한 기업의 가치사슬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명확한 활동 구분이 중요하다.

<그림 2-2> 가치사슬 모형



자료 : Poter(1985)의 일반 가치사슬 모형 재구성.

2. 가치사슬의 성과 측정

김길선·이원준·권성현(2003)에 따르면 가치사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가치사슬의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져왔으며, 지금까지 연구된 가치사슬의 성과측정 방법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 경쟁전략을 구성하는 특정요소 중심으로 가치사슬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가치사슬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표 2-7>과 같이 가치사슬 성과측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종합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가치사슬 이론을 활용함으로써 각 가치사슬 활동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2-6> 가치사슬 성과측정 방법

특정요소 중심의 가치사슬 성과측정		프레임워크를 통한 가치사슬 성과측정	
측정기준	연구자	연구자	측정기준
비용	Cohen and Lee(1988, 1989), Cohen and Moon(1990), Lee and Feitzinger(1995), Pyke and Cohen(1993, 1994), Tzafestas and Kapsiotis(1994)	Kaplan and Norton(1992)	재무 고객 내부공정 혁신과 학습
비용과 활동시간	Arntzen Et al.(1995)	Shin et al. (2000)	공급자 성과 구매자 성과
비용과 고객반응도	Altiok and Ranjan(1995), Christy and Grout(1994), Davis(1993), Cook and Rogowski(1996), Ishii et al.(1988), Newhart et al.(1992), Towill(1991), Towill et al.(1992), Wikner et al.(1991)	Supply Chain Council(2001)	고객만족/품질 시간 비용 자산
고객반응도	Lee and Billington(1993)	Beamon(1999)	자원 산출물 유연성
유연성	Voudouris(1996)		

자료 : 김길선·이원준·권성현 (2003), "가치사슬 성과측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서강논총, 제14권 2집, p. 26, p. 28.

제3절 FTA의 교역효과와 활용률

1. FTA 체결현황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정책을 통해 15건, 52개국과의 FTA 발효중이다(산업부, 2016). <표 2-7> 참조 이로서 한국은 미국, EU, 중국, ASEAN 등 세계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무역규모 기준으로 전세계 70.3%의 경제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심혜정·조빛나, 2016).

<표 2-7> 한국 FTA 추진 현황

2016년 11월 기준

진행단계	상대국	발표일	의의
발효 (15)	칠레	2004년 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6년 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2006년 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2009년 9월 발효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2010년 1월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U (28개국)	2011년 8월 잠정발효 2015년 12월 전체 발효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페루	2011년 8월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12년 3월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2013년 5월 발효 (기본 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14년 12월 발효	자원 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15년 1월 발효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5년 12월 발효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15년 기준)
	뉴질랜드	2015년 12월 발효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5년 12월 발효	우리의 제3위 투자대상국 ('15년 9월 기준)
	콜롬비아	2016년 7월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협상진행 (5건)	한중일	총 5차례 수석대표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	총 15차례 협상 개최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중미(6개국)	2016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중미 신시장 창출
	에콰도르 SECA	총 5차례 협상 개최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이스라엘	2016년 6월 제1차 협상개최	창조경제 모델국
협상재개 여건조성 (4건)	인도네시아	총 7차례 협상 개최	ASEAN 회원국 중 우리의 제3위 교역국('15년 기준)
	일본	2004년 11월 6차 협상 후 중단	우리의 제5위 교역대상 ('15년 기준)
	멕시코	2008년 6월 제2차 협상 후 중단	북중미 시장 교두보
	GCC(6개국)	2009년 7월 제3차 협상후 중단	자원부국, 기업선호도 1위 ('15년 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FTA추진현황

2. FTA의 교역효과 분석

가. 한·칠레 FTA~한·미 FTA

Baier and Bergstrand(2007)는 FTA 발효 후, 10년 동안의 FTA 당사국간 교역 규모를 분석하며, 평균적으로 2배가량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체결된 FTA의 교역규모 및 교역비중을 FTA 체결 전후로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써 FTA의 교역규모 및 교역비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8> 한·칠레 FTA ~ 한·미 FTA 국가간 교역규모

(단위: 백억불)

국가명 기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발효일	2004.4.	2006.9.	2007.6.	2010.1.	2011.8.	2011.8	2012.3
발효 전	2,106	3,928	72,172	13,501	109,995	3,156	114,231
1년차	3,021	4,487	89,760	19,002	107,920	3,349	109,695
2년차	4,233	6,692	85,137	22,069	110,723	3,537	113,701
3년차	6,518	7,126	94,398	20,444	122,263	3,343	126,558
4년차	8,419	8,446	119,427	18,949	114,886	2,755	123,635
5년차	6,345	8,645	139,082	19,488	108,339	2,581	
6년차	6,857	9,584	146,240	17,465			
7년차	7,974	9,478	149,500				
8년차	7,777	8,270	138,094				
9년차	7,765	12,266	126,820				
10년차	7,674	8,923					
11년차	7,761						

* ASEAN 교역규모 : 개별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베트남 교역규모 포함됨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국가별·경제권별 통계

먼저 최근에 체결된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FTA 제외한 한·칠레 FTA ~ 한·미 FTA 국가간 교역규모는 <표 2-8>과 같다. 한·칠레 FTA의 경우 FTA 발효가 11년차에 접어들어 따라, FTA 체결 전후 교역규모를 비교해보면 3.68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기체결 FTA의 교역규모가 평균적으로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한국의 전체적인 교역규모 감소에 따른 한·EU FTA, 한·페루 FTA 등 비교적 최근에 체결된 FTA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FTA가 교역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칠레 FTA ~ 한·미 FTA 국가간 교역비중은 <표 2-9>와 같다. 제일 먼저

체결된 한·칠레 FTA의 경우 4년차에 발효전 대비 2.22배 증가를 최대로 한국의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인해 교역비중이 0.6%(발효전 대비 1.5배 증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FTA 체결 국가간 교역비중을 비교한 결과 중력모형⁶⁾에 따라 한·ASEAN, 한·미 FTA 등의 교역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한·칠레 FTA ~ 한·미 FTA 국가간 교역비중

(단위: %)

국가명 기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발효일	2004.4.	2006.9.	2007.6.	2010.1.	2011.8.	2011.8	2012.3
발효 전	0.48	0.59	9.86	1.75	10.19	0.29	9.79
1년차	0.56	0.59	10.25	1.93	9.39	0.29	9.39
2년차	0.68	0.76	10.54	1.89	9.46	0.30	9.73
3년차	0.90	0.87	10.98	1.76	10.38	0.28	10.97
4년차	1.07	0.95	11.10	1.62	10.54	0.25	11.96
5년차	0.68	0.79	11.80	1.66	10.72	0.26	11.51
6년차	0.85	0.84	12.71	1.68	8.93	0.27	
7년차	0.79	0.81	12.71	1.63			
8년차	0.67	0.70	12.19				
9년차	0.67	1.13	12.81				
10년차	0.66	0.89	13.15				
11년차	0.68	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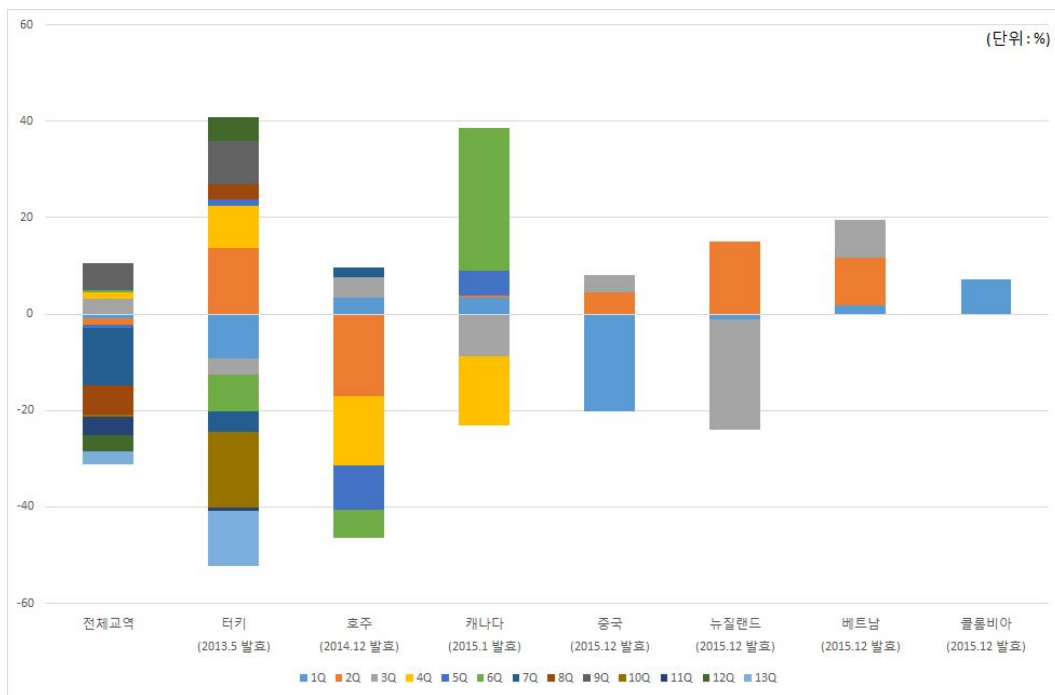
* ASEAN 교역규모 : 개별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베트남 교역규모 포함됨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국가별·경제권별 통계

6) 중력모형이란, 국가 간의 무역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당사국들의 인구 및 경제규모 (GDP)에 따라 비례하고, 거리(국가간의 물리적 거리, 문화적 거리, 소득 및 교역 규모의 유사성, GNP 격차, 언어 등)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이론으로 FTA의 경제효과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박희중 외, 2003; 이홍식 외, 2004; 손병해, 2012).

나. 한·터키 FTA~한·콜롬비아 FTA

최근에 체결된 한·터키 FTA ~ 한·콜롬비아 FTA 국가간 교역규모 증감율은 <그림 2-3>과 같다. 한·터키 FTA 비롯한 대부분의 최근에 체결된 FTA의 경우 교역규모가 감소세(평균 0.73%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전체 교역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한국의 전체 교역규모가 기간 중 평균 1.57% 감소한데 반해 FTA 체결로 인해 감소규모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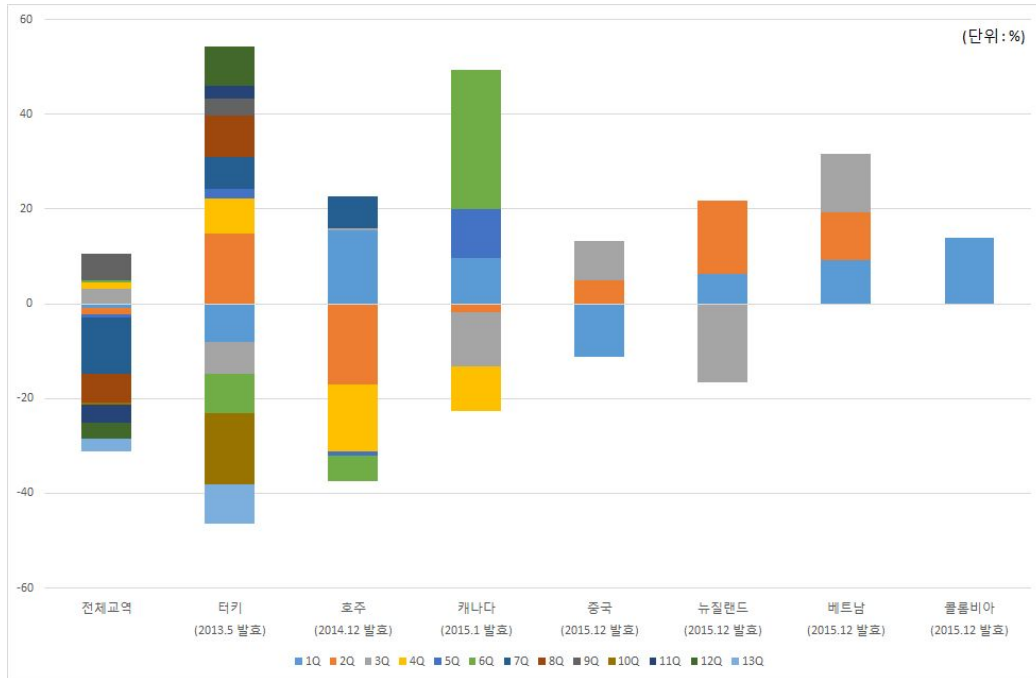
<그림 2-3> 한·터키 FTA ~ 한·콜롬비아 FTA 국가간 교역규모 증감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국가별·경제권별 통계

한·터키 FTA ~ 한·콜롬비아 FTA 국가간 교역비중 증감율은 <그림 2-4>와 같다. 위 <그림 2-3>과 같이 한국의 전체교역규모 감소에 따라 FTA 체결 국가들의 교역규모는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베트남 FTA 체결 후 교역비중이 평균 10.56% 증가하는 등 FTA 체결에 따라 FTA 체결국가들의 교역비중은 증가한 것(평균 2.01% 증가)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한·터키 FTA ~ 한·콜롬비아 FTA 국가간 교역비중 증감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국가별·경제권별 통계

지금까지 FTA 체결 후 경과기간에 따라 한·칠레 FTA ~ 한·미 FTA, 한·터키 FTA ~ 한·콜롬비아 FTA로 구분하여, FTA 체결에 따른 교역규모 및 교역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전체 교역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FTA 체결은 Baier and Bergstrand(2007)의 연구 결과와 같이 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규모 및 교역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FTA 활용률 분석

현재 한국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통해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중이지만, 중소기업의 FTA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정인교, 2009; 최낙균 외, 2009; 성한경, 2011; 오동윤, 2011, 이지원, 2015). 이에 본 연구는 기체결 FTA 활용률을 살펴봄으로써 FTA 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오동윤(2011)은 FTA 활용률이란 일정기간 동안 FTA체결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의 무역액 중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무역액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FTA 활용률에 관한 통계는 관세청에서 배포하고 있어, 관세청 배포자료를 토대로 기체결 FTA 활용률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은 <표 2-10>과 같다. FTA 수출 활용률은 FTA 전체 수출 활용률은 71.5%로 나타났으며, 한·캐나다, 한·EU, 한·페루, 한·EFTA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수입 활용률은 FTA 전체 수입 활용률은 72.1%로 나타났으며, 한·칠레, 한·호주, 한·ASEAN, 한·캐나다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원산지결정기준이 까다로운 한·인도 CEPA의 경우 FTA 수출 및 수입 활용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

(단위: %)

협정별	FTA 수출 활용률 (16년 3/4분기 누적)	FTA 수입 활용률 (16년 3/4분기 누적)
한·칠레 FTA	80.6	99.1
한·EFTA FTA	82.4	55.1
한·ASEAN FTA	46.8	76.7
한·인도 CEPA	65.1	57.0
한·EU FTA	86.0	71.5
한·페루 FTA	85.8	66.8
한·미국 FTA	72.5	69.5
한·터키 FTA	78.8	63.9
한·호주 FTA	78.5	78.4
한·캐나다 FTA	89.3	75.1
합계	71.5	72.1

※ 발효 1년이 경과된 11개 협정(49개국)을 대상으로 산출(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는 제외)

※ 수출활용률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100

※ 수입활용률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입실적*100

자료 : 관세청, FTA포털, FTA활용률

FTA 수출 활용률이 가장 높은 한·캐나다 FTA의 산업별 수출입을 살펴보면,

수출 활용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수출규모가 큰 기계류(93.9%)로 나타났으며, 가장 수출활용률이 낮은 산업은 광산업(2.3%)로 나타났다.

FTA 수출 활용률이 가장 낮은 한·인도 FTA의 산업별 수출입을 살펴보면, 수출 활용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철강금속제품은 철강금속제품(77.6%)으로 나타났으며, 수출활용률이 가장 낮은 산업 섬유류(33.6%)로 나타났다.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은 <표2-11>과 같다. FTA 수출 활용률이 높은 산업은 기계류,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철강금속제품, 화학공업제품으로 나타났으며, FTA 수입 활용률이 높은 산업은 기계류,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으로 나타났다.

<표 2-11>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

(단위: %)

산업별(MTI 1단위)	FTA 수출 활용률 (16년 3/4분기 누적)	FTA 수입 활용률 (16년 3/4분기 누적)
화학공업제품	68.7	50.6
광산물	62.5	70.6
기계류	77.8	86.9
농림수산물	54.2	73.9
생활용품	52.0	84.6
섬유류	50.7	63.4
잡제품	62.7	59.4
전자전기제품	66.4	75.6
철강금속제품	71.0	78.6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74.0	75.7
합계	71.5	72.1

※ 발효 1년이 경과된 11개 협정(49개국)을 대상으로 산출(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는 제외)
 ※ 수출활용률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100
 ※ 수입활용률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입실적*100
 ※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산업부에서 통계분류를 위해 편의상 비슷한 종류의 HS번호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자료 : 관세청, FTA포털, FTA활용률

협정별 및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전체적인 통계로 중소기업의 FTA 수출·입 활용률을 알아볼 수는 없었으나,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등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제품과 전기전자제품이 비교적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등 중소기업 위주의 제품은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FTA 협정별 양허수준이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FTA 수출·입 활용률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양허수준 확대 또는 원산지결정기준 완화를 위한 FTA 협정문 보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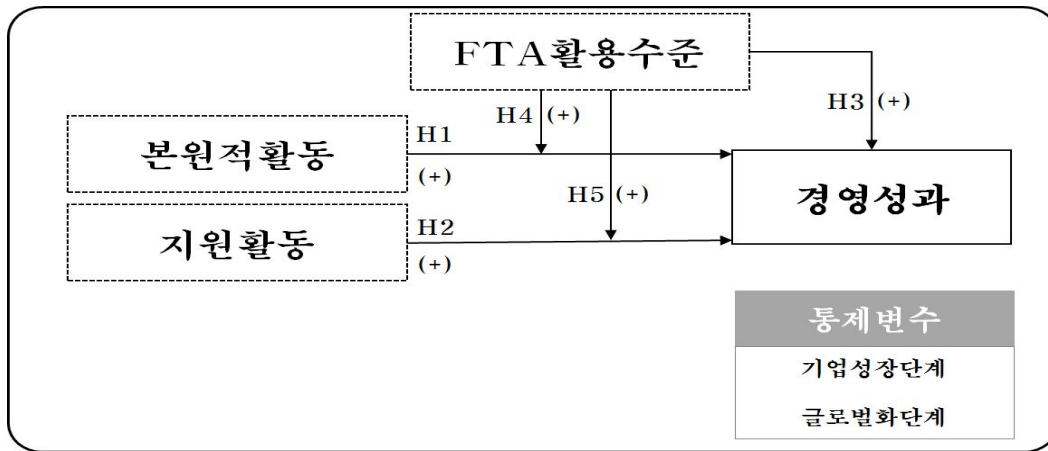
제3장 연구의 설계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FTA활용이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가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활동을 지원활동과 본원적활동으로 구분하여, 각 가치사슬 활동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FTA활용과 각 가치사슬 활동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조절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림 3-1> 연구모형



2. 연구가설의 설정

가. 본원적활동 역량과 경영성과

Porter(1985)에 따르면 가치사슬은 부가가치 창출 등에 따라 기업의 전략적 단위활동을 구분하여,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과 더불어 경쟁기업에 대비한 경쟁우위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가치사슬 상에서 모든 기업은 가치를 추가하는

각각의 전략적 단위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활동들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사슬을 이룸으로서 전체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사슬 활동 간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율적 연계 방안에 대해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치사슬 활동 중 본원적활동 역량은 내부 물류, 제조·생산, 외부 물류, 마케팅·영업, 서비스 등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영자원이다. 이러한 본원적활동 역량은 기업의 외부환경과 결합하여 다양한 경영전략을 취하게되며, 이를 통해 경쟁우위를 추구하게 된다(Miller, 1996).

이렇듯 본원적활동 역량은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등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 가치사슬 활동 중 본원적활동 역량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나. 지원활동 역량과 경영성과

가치사슬 활동 중 지원활동 역량은 기업 하부구조, 인적자원관리, 기술개발, 조달 활동 등 기업의 내부 경영자원 및 내부역량이다.

자원기반관점(Resource Based View)에서 내부 경영자원 및 내부역량은 기업의 경쟁우위가 창출되는 원천으로 보았다(Barney, 1991; Grant, 1996; Wernerfelt, 1984). 이러한 내부 경영자원 및 내부역량은 가치있고, 희소하며, 모방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자산이다(Barney, 1991).

이렇듯 지원활동 역량은 기업의 내부 경영자원 및 내부역량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가치사슬 활동 중 지원활동 역량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다. FTA활용수준과 경영성과

Krugman(1980)과 Bhagwati(1988)는 무역개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는 산업별 특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FTA를 활용하여 기업은 당사의 산업 특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FTA는 일반적으로 관세철폐에 따른 교역 확대와 더불어 투자확대를 동반하며, 이러한 교역 및 투자 확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켜 성장을 유발시킨다(신일성, 2013).

이러한 FTA의 효과를 통해 능력과 역량을 확보한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FTA를 통해 확대된 시장과 관세 인하효과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수출확대를 시도할 수 있다(윤영호, 2011)

이렇듯 기업의 FTA 활용은 기업의 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FTA 활용수준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FTA활용수준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 본원적활동 역량과 FTA활용수준

Baier and Bergstrand(2007)는 FTA 발효 후, 10년동안 FTA 발효 당사국간의 교역규모를 분석하여, 교역규모가 평균적으로 두 배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Sohn and Lee(2010)는 66개국의 1991~2004까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FTA가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강한 정(+)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시욱(2007)은 FTA 등을 통해 확대된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생산요소 이용의 효율을 증대시켜 생산성 증대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관세절감에 따른 비용절감과 더불어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FTA 효과를 기업이 활용함으로써 기존 본원적활동 역량으로 구축된 경쟁우위를 강화할 것이다. 이렇듯 FTA 활용수준은 본원적활동 역량이 경쟁우위를 형성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3 : FTA활용수준은 가치사슬 활동 중 본원적활동 역량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것이다.

마. 지원활동 역량과 FTA활용수준

Bhagwati(1995)는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 통관절차, 기술표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과 인력부분의 손실 발생으로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감소되는 스파게티볼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점차 복잡해지는 FTA 환경에서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를 이해하는 지식역량이 필요하다(윤영호 외, 2013). 이는 지식기반이론측면에서 경영자원으로써 설명될 수 있는데, Barney(1991)는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전략적 자산의 특성으로 가치가 있고, 드물며, 모방의 불가능함을 들고 있다. FTA를 이해하는 기업의 지식이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암묵지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이는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장세진, 2012). 따라서 기업 측면에서 FTA에 대한 지식역량을 비롯한 FTA 활용수준은 FTA시대에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듯 FTA활용수준은 내부 경영자원 및 내부역량인 지원활동 역량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4 : FTA활용수준은 가치사슬 활동 중 지원활동 역량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것이다.

제2절 연구표본과 변수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FTA활용이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아보기 위해 전남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남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요인을 가치사슬 활동 중 본원적활동 역량과 지원활동 역량, 그리고 FTA 활용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FTA활용이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아보기 위해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표본기업을 선정하기위해 아래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였다.

첫째, 전남지역 주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을 고려하였다. 전남지역의 산업특성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 자동차부품 등이 있으며, 또한 다른 지역과 달리 농수산식품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둘째, FTA활용수준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위해 수출기업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FTA활용의 가능성이 높은 수출기업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FTA 활용하지 않는 기업과 FTA 활용하는 기업과의 가치사슬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표본기업을 2015년~201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중소기업 998개 기업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표본기업 998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팩스, 웹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998개 중 117개 설문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약 11.7%로 나타났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손명호 외(2003)의 BSC 성과변수를 바탕으로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설문항목은 ‘①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품질수준이 높아졌는가, ②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틈새시장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가, ③ 고객 관리에 필요한 신속한 고객응대, 불만처리 등이 향상되었는가, ④ 자재 조달, 적기납품 등의 내부프로세스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는가, ⑤ 지속적인 내·외부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종업원 근무 환경과 안전수준이 나아졌는가, ⑥ 최고경영자 리더십이 향상되었는가, ⑦ 부서간 협력정도는 향상되었는가’로 구성하고, ① ‘전혀 아니다’... ⑤ ‘매우 그렇다’로 5점 등간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속변수에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통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총 2가지로 가치사슬 활동을 본원적활동 역량, 지원활동 역량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가치사슬 활동 중 본원적활동 역량은 ‘① 경쟁사 대비 제조리드타임이 어떠한가, ② 경쟁사 대비 제품 적시 출하정도는 어떠한가, ③ 경쟁사 대비 납품까지 소요시간이 어떠한가, ④경쟁사 대비 재고유지비용이 어떠한가, ⑤ 경쟁사 대비 물류비용이 어떠한가’로 구성하고, 이에 대하여 ①‘전혀 아니다’...⑤ ‘매우 그렇다’로 5점 등간 척도로 측정하였다.

지원활동 역량 중 기술개발 역량은 ‘① 경쟁사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② 경쟁사 대비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 경쟁사 대비 특허, 품질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④ 경쟁사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이 어떠한가’로 구성하고, 이에 대하여 ①‘전혀 아니다’...⑤ ‘매우 그렇다’로 5점 등간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 조절변수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FTA활용수준을 고려하였다. FTA활용정도는 FTA 관심도나 FTA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 FTA활용수준을 측정하였다.

FTA활용수준은 ① FTA 혜택 인지도 ② FTA관련 교육 참여도 ③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정도 ④ CEO의 FTA관심정도 등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하여 ①‘전혀 아니다’...⑤ ‘매우 그렇다’로 5점 등간 척도로 측정한다.

라.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업수준의 통제요인을 통제변수로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하였다. 기업수준의 통제요인은 기업성장단계, 기업의 글로벌화 정도를 고려하였다.

기업성장단계는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업력, 기업규모, 신제품 생산가능성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한형 외, 2011).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성장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업의 글로벌화는 수출에서의 경쟁우위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글로벌화 정도가 높을수록 규모의 경제 실현, 원가절감 등을 통한 가격우위, 현지 시장 환경과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한 제품의 현지화 등을 통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영재, 2009). 본 연구에서는 Uppsala Model을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화 정도를 1~5단계로 나누어(5단계에 가까울수록 글로벌화 정도가 높음) 분석에 포함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의 분석

제1절 기초통계량 및 모형검증

1. 분석데이터의 기초통계

연구결과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표본의 업종 분포와 수출 및 관심 FTA지역 분포를 알아보았다. 그에 따라 <표 4-1>에서는 연구표본의 업종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식음료 30개 기업(25.6%), 기계 및 장비 29개 기업(24.8%), 화학 및 고무/플라스틱 17개 기업(14.5%)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23개 업종(19.7%)은 콘크리트 제조업, 제제업, 폐기물처리업, 자동차 수리업 등 업종이 분포하였다. 연구표본의 업종 분포가 전남 중소기업의 업종 분포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표본이 전남 중소기업의 업종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연구표본의 업종 분포

(단위 : %)

구분	빈도	비율
식음료	30	25.6
기계 및 장비	29	24.8
화학 및 고무/플라스틱	17	14.5
전기전자 및 통신장비	6	5.1
선박 및 조선	6	5.1
금속가공	5	4.3
섬유 및 의류	1	0.9
기타	23	19.7
계	117	
원재료	11	9.4
중간재	33	28.2
완성품	73	62.4
계	117	

<표 4-2>에서는 연구표본의 수출 및 관심 FTA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중 FTA 50개 기업(36.0%), 한·베트남 FTA 19개 기업(13.7%), 한·미 FTA 17개 기업(12.2%), 한·ASEAN FTA 13개 기업(9.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 FTA 7개 기업(5.0%)으로 한·칠레 FTA, 한·뉴질랜드 FTA, 한·캐나다 FTA 등이 해당되었으며,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에 대한 수출이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표본의 수출 및 관심 FTA 분포를 통해 최근 이슈인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은 것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4-2> 연구표본의 수출 및 관심 FTA 분포

(단위 : %)

구분	빈도	퍼센트
한·중 FTA	50	36.0
한·베트남 FTA	19	13.7
한·미 FTA	17	12.2
한·ASEAN FTA	13	9.4
한·EU FTA	11	7.9
한·인도 CEPA	9	6.5
한·호주 FTA	8	5.8
한·싱가포르 FTA	5	3.6
기타 지역 FTA	7	5.0
합계	139	

2. 연구모형의 검증

가.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본 연구는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먼저 각 요인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은 측정하고자하는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개념간에 동질성을 나타내는 집중타당성과 상이한 개념간 차별성을 나타내는 판별타당성 두가지로 구분된다. 따라서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간에는 집중타당성이 있어야하며, 각 요인들간에는 판별타당성이 있어야한다. 이러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이 주로 사용된다.

요인분석은 사회현상에 관한 개념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항목들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각 요인을 구분함으로써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고, 동질성을 가진 항목들의 관계에 의해서 각 요인의 성질을 간결한 형태로 기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ze)⁷⁾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각회전방식(Varimax)⁸⁾을 적용하여, 각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신뢰성은 측정결과의 일관성, 정확성, 안정성, 예측가능성, 의존가능성 등이 중요하다. 이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이 나올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도를 검증하기위해 항목분석을 이용한다. 항목분석은 측정방식에 따라 재검사법, 복수양식법, 반분법,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등이 있다. 이 중 내적일관성은 동일한 측정을 위해 항목간 평균적 관계를 근거로 항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항목분석 방법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표 4-3>과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결과가 도출되었다.

7) 탐색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연구로 측정도구의 개념을 잡고자할 때, 측정도구 내에 존재하는 잠재요인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이론적으로 규정된 잠재요인이 없을 때, 측정도구간 동일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을 추출하여 측정도구의 양을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함(우수명, 2010).
8) 직각회전방식 중 Varimax는 요인행력의 열(Column)의 분산의 합계를 최대화함으로써 열(요인)을 단순화하는 방식이다(이학식 외, 2011). 이러한 Varimax에 의한 회전결과 얻게 되는 요인구조는 변수들이 바뀌어도 크게 변하지 않아 안정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 됨(우수명, 2010).

<표 4-3>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1)경영성과	(2)FTA 활용 수준	(3)본원적활동 역량	(4)지원 활동 역량
최고경영자 리더십 향상	.788	.238	.216	.163
종업원의 근무환경과 안전수준 향상	.762	.194	.317	.073
내부프로세스 효율성 향상	.728	.025	.274	.305
부서 간 협력정도 향상	.658	.151	.564	-.006
고객응대, 불만처리 등 향상	.641	.252	.244	.175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틈새시장 개척	.545	.315	.121	.337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072	.885	.168	.032
FTA관련 교육 참여	.181	.884	.103	.235
FTA 혜택 인지도	.251	.879	.002	.234
최고경영자의 FTA 관심	.252	.878	.080	.139
재고유지비용	.262	-.057	.788	.138
적시 납품	.243	.020	.765	.281
낮은 물류비용	.213	.158	.693	.237
짧은 납품 시간	.290	.095	.645	.331
제조리드타임	.183	.248	.643	.189
특허 및 품질인증	.081	.181	.231	.863
연구개발비 지출	.123	.285	.249	.789
기술의 다양성	.384	.138	.334	.741
기술력 보유	.439	.104	.346	.642
Eigen Value	3.690	3.633	3.521	3.028
공통변량(%)	19.422	19.119	18.529	15.936
누적 공통변량(%)	19.422	38.541	57.070	73.006
Cronbach's Alpha	.879	.940	.849	.896

* KMO=0.884, Bartlett's test 결과 $\chi^2=1734.080(df=171, Sig=0.000)$

요인분석 결과,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들은 각각 정확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해당 요인의 적재값도 모두 0.5 이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와 더불어 각 변수의 신뢰성 검증은 상기와 같이 내적일관성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내적일관성지표인 Cronbach's Alpha값을 이용하였다. Cronbach's Alpha값은 0.6~0.7 이상이면 신뢰성에 문제가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신뢰도 검증 결과 모든 변수들의 Cronbach's Alpha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의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표본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Kaiser-Meyer-Olkin 측도를 살펴본 결과 0.884로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검정치가 1734.080이고, 이 값의 유의수준이 0.000으로 요인분석에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4-4>와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변수 간 상관관계는 회귀분석에 적합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표 4-4> 변수 간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① 경영성과	1					
② 기업성장단계	-.229*	1				
③ 글로벌화단계	.033	.010	1			
④ 본원적활동역량	.600**	-.180	.119	1		
⑤ 지원활동역량	.676**	-.149	-.043	.307**	1	
⑥ FTA활용수준	.480**	-.259**	.138	.431**	.307**	1
평 균	3.705	3.117	1.619	2.462	3.670	3.552
표준편차	0.571	1.032	0.736	1.043	0.607	0.795
최 소 값	2.5	1.0	1.0	1.0	2.6	1.8
최 대 값	5.0	5.0	5.0	5.0	5.0	5.0

주 : *p<0.05, **p<0.01(양측검정)

다. 다중공선성 검증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모든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지수는 최대값이 2.531로 나타났다. VIF지수가 5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유발하는 변수일 것으로 의심해 봐야 하며,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유발하는 변수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허용범위인 5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분석결과 및 가설 검증

1. 분석결과의 제시

본 연구는 FTA 활용수준이 기업의 가치사슬 활동역량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다중회귀분석은 상관관계 분석이 단일변수만을 고려하는데 반해, 각 변수들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의미정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다중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값을 예측하거나 그 변화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각 독립변수, 조절변수 및 상호작용항과 종속변수의 관련여부, 관계의 방향 및 강도를 확인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표 4-5>와 같이 최종적인 회귀분석 결과를 얻었다. 모델 1은 독립변수와 상호작용 변수들을 제외한 기준 모델이며, 모델 2는 독립변수인 본원적활동 변수를 포함한 모델이며, 모델 3은 독립변수인 지원활동 변수를 포함시킨 모델이다. 모델 4는 조절변수인 FTA 활용수준을 포함시킨 모델이며, 모델 5는 상호작용항인 본원적활동과 FTA 활용수준, 지원활동과 FTA 활용수준을 포함한 모델이다.

통제변수만 적용한 모델 1은 회귀식의 설명력인 $R^2=0.054$ 이고 통계량 F값은 3.232로 유의수준 $P<0.05$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성장단계가 경영성과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 독립변수인 본원적활동을 포함한 모델 2는 회귀식의 설명력인 $R^2=0.478$ 이고 통계량 F값은 34.447로 유의수준 $P<0.001$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원적활동이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회귀분석 결과

변수		경영성과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통제변수						
	기업성장단계	-.229* (-2.517)	-.132† (-1.913)	-.109 (-1.631)	-.064 (-.972)	-.070 (-1.037)
	글로벌화 단계	.035 (.386)	.063 (.924)	.025 (.369)	.000 (.005)	-.012 (-.172)
독립변수						
H1	본원적활동		.659*** (9.582)	.494*** (5.655)	.480*** (5.727)	.483*** (5.558)
H2	지원활동			.258** (2.913)	.175† (1.978)	.178† (1.983)
조절변수						
H3	FTA활용수준				.241*** (3.350)	.248*** (3.360)
조절효과						
H4	FTA활용수준×본원적활동					-.052 (-.511)
H5	FTA활용수준×지원활동					.029 (.295)
	R ²	.054	.478	.515	.559	.560
	Adjusted R ²	.037	.464	.497	.539	.532
	ΔR ²		.424	.037	.044	.001
	F	3.232*	34.447***	29.692***	28.167***	19.843***
	N	117	117	117	117	117

주 : 회귀계수는 표준화 계수이며, 괄호 안은 t값. † p<0.1, *p<0.05, **p<0.01, ***p<0.001(양측검정).

모델 3에 조절변수인 FTA활용수준을 포함한 모델 4는 회귀식의 설명력인 $R^2=0.559$ 이고 통계량 F값은 28.167로 유의수준 $P<0.001$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원적활동, FTA활용수준, 지원활동순으로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에 상호작용항인 본원적활동과 FTA활용수준, 지원활동과 FTA활용수준을 포함한 모델 5은 회귀식의 설명력인 $R^2=0.560$ 이고 통계량 F값은 19.843로 유의수준 $P<0.001$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원적활동, 지원활동순으로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위한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검증 결과

<표 4-6>은 FTA 활용수준의 가치사슬 활동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분석하기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표 4-6>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성 가설검증

가설	표준화계수	유의수준	부호	가설채택
H1 : 본원적 활동 → 경영성과	.483	.000	+	채택
H2 : 지원활동 → 경영성과	.178	.050	+	채택
H3 : FTA활용수준 → 경영성과	.248	.001	+	채택
H4 : (본원적활동×FTA활용수준) → 경영성과	-.052	.610	-	기각
H5 : (지원활동×FTA활용수준) → 경영성과	.029	.769	+	기각

가설 1 : 가치사슬 활동 중 본원적활동 역량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 : 가치사슬 활동 중 지원활동 역량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 FTA 활용수준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 FTA 활용수준은 가치사슬 활동 중 본원적활동 역량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5 : FTA 활용수준은 가치사슬 활동 중 지원활동 역량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것이다.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본원적활동($\beta=.483$, $\text{sig}=.000$), FTA 활용수준($\beta=.248$, $\text{sig}=.001$), 지원활동($\beta=.178$, $\text{sig}=.050$) 순으로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1, 가설 2,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 4,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제5장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글로벌 경쟁심화와 FTA 확대됨에 따라 FTA 활용주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치사슬 활동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데 FTA활용수준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치사슬 활동을 본원적활동 역량과 지원활동 역량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과 기업의 경영성과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정한 요인들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냈다. 이와 더불어 FTA활용수준은 독립변수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냈지만, 본원적활동 역량과 지원활동 역량 모두에 FTA활용수준의 조절효과는 밝혀내지 못 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요인들이 어떻게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사슬 활동 중 본원적활동 역량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가치사슬 활동 중 본원적활동 역량 높을수록 기업의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 경쟁우위에 기여하여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이 본 연구를 통하여 재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치사슬 활동 중 지원활동 역량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기반관점에서 기술개발, 인적자원관리 등 간접적인 활동이 기업의 내부 경영자원 및 내부역량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여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FTA 활용수준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FTA가 발효되고,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등 혜택 증가와 함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FTA 활용수준이 기업의 지식역량으로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FTA 활용수준이 가치사슬 활동의 본원적활동 역량과 지원활동 역량의 조절효과는 밝혀내지 못 했다. 이는 기업의 FTA 활용이 아직 기업의 경영 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기업이 현재 FTA 관세인하 효과만을 활용함으로써 FTA를 경영자원으로써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악하였다.

2.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거시적인 차원의 FTA 연구가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시적인 차원의 FTA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FTA 연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FTA 효과에 관한연구나 FTA 원산지관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룸에 따라 활용주체인 중소기업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 분위기를 환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둘째, FTA와 연계하여 가치사슬 활동을 본원적활동과 지원활동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보통 FTA와 연계하여 SCM 등 본원적 활동을 중심으로 가치사슬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데 반해, 지원활동을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점에서 향후 FTA를 자원기반관점에서 내부 경영자원 및 내부역량으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FTA 활용수준의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가 FTA 효과를 직접적인 국가경제나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을 연구한데 반해, 조절효과로써 간접적인 영향요인은 연구함에 따라 향후 FTA를 경영자원으로써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FTA 활용수준의 조절효과를 검토한 결과 조절효과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FTA가 기업의 경영자원으로써 활용이 미흡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FTA를 단순히 관세인하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고 경영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우위를 창출하는데 정부지원제도 개선이나 기업 경영인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실제 중소기업의 현황을 가치사슬 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GVC 활용을 위한 가치사슬 재설계에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정부정책인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 역할을 하기 위해선 기업 내부의 경영자원으로써 FTA가 활용되어 GVC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본 연구지역을 전남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연구결과를 보편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전남지역의 특성상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중소기업의 경영이 대기업에 의존적이며, FTA 활용이 까다로운 농수산물 업체들이 다수 차지함에 따라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는 전국단위의 연구하여 보편화 할 수 있는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둘째, 본원적활동 역량과 지원활동 역량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FTA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류활동과 기술개발활동 등만 고려하여, 이외의 생산활동, 서비스, 인적자원관리 등 다양한 가치사슬 활동역량을 고려하지 못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는 다양한 가치사슬 활동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자원으로써 FTA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유덕 (2012), “한·EU FTA 1년의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제12권, 제15호.
- 김길선·이원준·권성현 (2003), “가치사슬 성과측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서강논총, 제14권 2집, pp. 23-51
- 김미아 (2008), “한·칠레 FTA가 제조업수출에 미친 효과”, 「국제통상연구」, 제13권, 제2호, pp. 47-63.
- 김영재 (2009),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발전단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명진호·문병기·조성대 (2013), “한·미 FTA 1주년 평가-FTA혜택별 수출효과와 경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제12권, 제14호.
- 문한필·정호연·김수지·김영준 (2014), “한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 농촌경제연구원.
- 민혁기·김도훈·김수동·정근주·정재화 (2011), “한·칠레 FTA의 무역효과분석과 시사점-무역전환효과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600.
- 박희중·정미혜 (2003),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분석”, 「무역학회지」, 제28권 제2호, pp. 275-299.
- 배찬권·김정곤·금혜윤·장용준 (2012),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03.
- 산업통상자원부 (2013), “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 통상정책총괄과.
- 성한경·김혁황·금혜윤 (2011), “기발효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1-01.
- 손명호·김재구·유태우·임호순·이희석 (2003), “기업전략에 따른 균형성과표성과지표비교분석”, 경영정보학연구, 제13권, 제1호, pp. 1-22
- 손병해 (2012), “무역구조 분석을 통해서 본 한·중·일 FTA의 기대효과와 전개방향”, 「국제통상연구」, 제17권 제3호, pp. 35-62.

- 송백훈·임현진 (2012), “한국과 ASEAN 개별국가와의 양자간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국제통상연구」, 제17권 제2호, pp. 25-50.
- 송병준 (2014), “FTA환경하에서의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IT기반 FTA특화 비즈니스모델 구축방안”, KTNET, 이슈리포트 2014-1.
- 송승이 (2011),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Vol. 10, No. 14.
- 신범철 (2010), “한·EU FTA의 거시경제효과 비교·분석 CGE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판적 검토”, 「유라시아연구」, 제7권, 제1호, pp. 125-150.
- 신일성 (2012), “FTA 경제적 효과가 기업의 경영전략과 BSC 성과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혜정·조빛나 (2016), “한국무역 70년의 발자취”,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No.22
- 오동윤 (2012), “한국중소기업의 수출결정요인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7권 제2호, pp. 135-159.
- 우수명 (2010), “언제하나?! 마우스로 잡는 PASW 18.0”, 인간과복지.
- 윤영호 (2011), “FTA환경 하의 수출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시욱 (2007), “시장개방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제184호
- 이지원 (2016),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약요인 분석: AHP 기법을 이용하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식·임지훈 (2010), “SPSS 18.0 매뉴얼”, 집현재.
- 이홍식·이종화·신관호·황윤중 (2004),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4-05.
- 장세진 (2012), “경영전략 제7판”, 박영사.
- 정운호·이재은·강지원·심재혁·이희일·최민지 (2016), “FTA 관련 기업의 내부특성과 외부환경요인이 FTA 활용의지에 미치는 영향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제12권, 제4호, pp. 689-707.
- 정인교 (2009),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pp. 367-390.
- 정철기 (2008), “한·중FTA 체결이 광주·전남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농

- 수산부문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0권 4호, pp. 353-372.
- 최낙균·이경희·김정곤 (2009),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9-03.
- 표한영·오동운·박태수 (2011), “수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출결정요인 및 애로요인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외국문헌

- Baier, Scott. L. and Jeffrey H. Bergstrand (2007), "Do Free Trade Agreements Actually Increase Members'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71, No.1, pp. 72-95.
- Barney, Jay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Vol.17, No.1, pp. 99-120.
- Bhagwati, Jagdish. N. (1988), "Export-Promotion Trade Strategy : Issues and Evidenc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pp. 27-57
- Bhagwati, Jagdish. N. (1995), *US Trade Policy : The Infatuation with FTAs*, Columbia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 Grant, Robert. M. (1996), "Toward a Knowledge Based Theory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7, No.S2, pp. 109-122.
- Kaplan, Robert. S. and David P. Norton (1992), "The Balanced Scorecard-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1992, pp. 70-80.
- Krugman, Paul. R. (1980), "Scale Economi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the Pattern of Trad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0, No. 5, pp. 950-959
- Miller, Danny (1996), "Configurations Revisited",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7, No. 7, pp. 505-512.
- Porter, Michael. E (1985),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THE FREE PRESS
- Sohn, Chan-Hyun and Hongshik Lee (2010), "Trade Structure, FTAs, and Economic Growth",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4, No. 3, pp.683-698
- Viner, Jacob (1950),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 Wernerfelt, Birger (1984), "Are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5, No. 2, pp. 171-180.

인터넷 자료

- 관세청(2016), "관세청FTA포털, FTA자료실, FTA활용률", 2016.11.10. 접속,
<http://www.customs.go.kr/kcshome/ftaportalkor/ftaTrtyManage/ExportAgreeFtaUseRate.do?layoutMenuNo=32131&cnvnNm=ALL>
- 산업통상자원부(2016),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 FTA", 2016.10.30. 접속,
<http://www.fta.go.kr/main/situation/fta/term/>
- 통계청(2016), "국가통계포털, 지역통계", 2016.11.10. 접속,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2List.jsp?vwcd=MT_ATITLE01&parmTabId=M_02_01_01
- 한국무역협회(2016), "무역통계, 한국 무역통계", 2016.11.10. 접속,
<http://stat.kita.net/stat/kts/ktsMain.screen>

전라남도 중소기업 대상
 기업의 가치사슬 활동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
 (FTA활용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남 중소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 중에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전남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활동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FTA 활용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로지 연구 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 설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설문에 할애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 10. .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밀을 보장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설문회신처 : E-mail(yunhoknight@naver.com), FAX(0303-3261-1137)

* 문의처 :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정운호
 H·P. 010-6360-6532

A. 기업 일반 사항

업체명		설립연월	
-----	--	------	--

*이 정보는 응답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응답확인만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입니다.

A-1. 귀사가 속하는 업종은 무엇입니까.(복수 선택 가능)

- ①식음료 ②섬유 및 의류 ③기계 및 장비 ④화학 및 고무/플라스틱
 ⑤전기전자 및 통신장비 ⑥기타()

A-2. 귀사의 주력 제품은 다음의 어디에 속합니까.(복수 선택 가능)

- ① 원재료 ② 중간재료/중간부품 ③ 완성품

A-3. 귀사는 다음 기업성장단계 중 어느 단계에 위치합니까.

①창업기	②초기성장기	③고도성장기	④성숙기	⑤쇠퇴기
-회사창업 -제품개발단계	-제품시장출시 -매출액발생	-후속신규제품출하 -매출액 증가	-신규제품출하둔화 -매출액 증가세둔화	-후속제품출하둔화 -매출액정체 또는 지속 감소
()	()	()	()	()

A-4. 귀사는 현재 글로벌화 5단계 중 어느단계에 속합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수출기업에 수출품 로컬공급	직접 해외 수출 활동	해외사무소 또는 판매법인 설치 활동	해외에서 생산과 판매(A/S) 활동	해외에서 연구개발, 구매, 생산, 판매(A/S) 활동
()	()	()	()	()

A-5. 귀사의 상시근로자수(2016년기준)는 몇 명입니까. (명)

A-6. 귀사의 최근 3개년 매출액과 수출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천 불	()천 불	()천 불

B. 경영성과

위 A-6(최근 3개년 매출액 및 수출액)과 최근 귀 사의 상황을 바탕으로 경영성과에 대해 응답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B-1. 귀 사의 재무적 관점에서의 경영성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무적 관점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2.투자비용 회수기간 혹은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투자비 대비 수익의 증가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3.영업이익 등 수익률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4.운전자본비율, 시장 평균 수익률, 자산회전율 등이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전사적인 원가 절감률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B-2. 귀 사의 고객 관점에서의 경영성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객 관점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고객별 순이익 증가율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2.신규고객 확보가 용이하고, 신규고객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고객의 충성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우리 회사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5.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B-3. 귀 사의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의 경영성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부프로세스 관점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품질수준도 높다.	①	②	③	④	⑤
2.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틈새시장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고객관리에 필요한 신속한 고객응대, 불만처리 등이 향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고객사의 원자재 조달, 적기납품 등의 내부 프로세스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지속적인 내·외부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종업원 근무환경과 안전수준이 좋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최고경영자 리더십이 향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부서 간 협력정도가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B-4. 귀 사의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의 경영성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습과 성장 관점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종업원들의 역량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켰다.	①	②	③	④	⑤
2.종업원의 제안 활성화 및 지식공유가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자사에 구축된 IT기반 시설들이 우수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종업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회사에 협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핵심인재의 확보율이 높은 편이며,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 가치사슬 활동 중 지원활동 역량

귀 사의 가치사슬 활동 중 지원활동 역량에 대해 응답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C-1. 귀 사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지원활동 역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적자원관리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우리 회사는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드는 요소를 알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각 종업원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있으며,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종업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종업원의 개발과 성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5.창의적인 인재를 고용하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6.종업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보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2. 귀 사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활동 역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술개발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경쟁사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경쟁사 대비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경쟁사 대비 많은 특허, 품질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경쟁사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이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가치사슬 활동 중 본원적활동 역량

귀 사의 가치사슬 활동 중 본원적활동 역량에 대해 응답란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D-1. 귀 사의 물류에 대한 본원적활동 역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경쟁사 대비 재고회전율이 낮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경쟁사 대비 제조리드타임이 짧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경쟁사 대비 제품이 적시에 출하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경쟁사 대비 납품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경쟁사 대비 재고유지비용이 낮은 편이다. (예 : 보관비, 손실비 등)	①	②	③	④	⑤
6.경쟁사 대비 물류비용이 낮은 편이다. (예 : 운송비, 하역비 등)	①	②	③	④	⑤

D-2. 귀 사의 마케팅에 대한 본원적활동 역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케팅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경쟁사 대비 활발한 광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경쟁사 대비 신제품 출시 속도가 빠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경쟁사 대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경쟁사 대비 고객서비스 활동에 적극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D-3. 귀 사의 생산에 대한 본원적활동 역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케팅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경쟁사 대비 대량 생산시설(자동화 설비)을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경쟁사 대비 최신 생산설비를 보유하거나 최신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경쟁사 대비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생산직 숙련공(기술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 FTA 활용

귀 사의 FTA 활용에 대해 응답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1. 귀사가 수출하는 혹은 관심있는 FTA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한·칠레 FTA	②한·싱가포르 FTA	③한·EFTA FTA	④한·ASEAN FTA
⑤한·인도 CEPA	⑥한·EU FTA	⑦한·페루 FTA	⑧한·미 FTA
⑨한·터키 FTA	⑩한·호주 FTA	⑪한·캐나다 FTA	⑫한·중 FTA
⑬한·뉴질랜드 FTA	⑭한·베트남 FTA	⑮한·콜롬비아 FTA	

E-2. 귀 사의 FTA 활용수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FTA 활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FTA 혜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FTA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우리 회사 최고경영자는 FTA에 대해 관심이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바쁘신 와중에도 긴 설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 위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남겨주시면, 설문 회수 후 설문결과 및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